

한국주도의 통일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통일한 국가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포석을 깔고서 접근

6자회담 주도권 유지 및 對韓영향력 강화

-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의도
- »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조항에 반영

한국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포석

- 시진핑 시기 중국의 對韓 접근전략은 향후 다가올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내포
- »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보다는 한국주도의 통일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통일한 국가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포석을 깔고서 접근

4. 중국의 對韓 접근이 미치는 파장

한중 양자관계 관리의 난도(難度) 증대

- 시진핑 지도부의 적극적인 對韓접근은 한중관계 발전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양자관계 관리에 대한 한국의 어려움(難度)을 증대시킬 전망
- » 중국의 접근은 "조건이 분명한 호의"로서, 언젠가는 우호적 접근에 대한 대가성 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관리의 긴장을 요구하는 부분

원치 않는 '선택의 딜레마' 봉착 가능성

- 중국의 對韓 적극적 접근과 더불어 미중 경쟁구도 및 중일 대립구도가 격화될 경우 이는 한국이 원치 않는 '선택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가능성
- » 한국은 이미 중일관계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AIB 가입과 THAAD 배치 문제를 두고서 미·중 사이에서 '헤징(hedging)딜레마'를 겪고 있음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역내 다자협력의 어려움

- 중국의 對韓 접근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려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핵 6자회담 등 역내 다자협력구도를 뒤흔들 수 있음
- » 일례로 일본은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관계진전을 이루었으며, 대북제재 역시 완화하기로 약속했는바,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을 흔들고 있음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가속화

- 중국의 적극적인 對韓접근 전략은 일본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역학구도 및 관련국간 경쟁구도를 가속화 할 가능성
- » 동아시아에서 힘의 방향성은 기존의 '현상유지'가 무너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적극적 對韓 접근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증대

언젠가는 우호적 접근에 대한 대가성 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관리의 긴장을 요구

발행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cp.i.com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國政策研究所

2015. 3. 23 <제2호>

시진핑 지도부의 對한국 접근전략과 대응방향

박병광(朴炳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

정책 제언

중국의 對韓접근과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원칙' 설정

- 중국의 對韓 접근은 양국관계 발전과 지역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거나 제3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對韓 접근과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내부적으로 설정

중국의 對韓접근을 활용한 '북한 변화' 견인

- 중국의 對韓 접근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남·북한과 중국의 '3국 경험'을 통해 북한개혁과 개방에 '촉매제' 역할을 추구

역내 '세력전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전략 수립

- 동아시아의 역학구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독자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미중관계 속에서 가능한 '협력이슈', '중립이슈', '갈등이슈'를 정확히 분류, 파악하며,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

청와대에 '한중관계' 또는 '미중관계' TF 설치

-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중국담당' 또는 '미중관계' 태스크포스(TF)를 청와대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남북한과 중국의 '3국 경험'을 통해 북한개혁과 개방에 '촉매제' 역할을 추구

'중국담당' 또는 '미중관계' 태스크포스를 청와대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

문제 제기

1. 시진핑 지도부가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

- 중국은 한국에 대해 자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주도권 지위 달성의 중요한 '조력자'이자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 » 중국은 한국이 역내에서 자국의 구조적 경쟁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이 동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요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중견국'으로 인식

중국의 對日압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대상

- 시진핑 지도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 및 '고립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 중국은 일제침략에 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으로 일본과 대립관계에 있는 한국이 대일압박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미국주도 對중국 봉쇄망 이완의 조력자

- 시진핑 지도부는 언젠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자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협력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
- » 중국은 한국과 수교 이후 정치, 군사, 안보 등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對중국 봉쇄망 이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는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 »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은 수입대상국 1위, 수출대상국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FTA 체결과 더불어 중국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

2. 시진핑 지도부의 對韓 접근전략의 내용

한중관계의 '내실화' 및 '긴밀화'

- 시진핑 시기 중국의 對韓전략의 내용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한·중 양자관계의 '내실화'와 '긴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의 내실화와 긴밀화를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세부이행계획'에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공통 인식과 전략적 협력을 추구

'정경분리'에서 '정경합일'의 방향으로

- 중국의 전통적인 對韓 전략은 '정경분리(政經分離)'로 대표되어 왔으나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정경합일(政經合一)'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
- » 이는 과거 중국지도부가 안보대화, 군사교류, 한국방문, 탈북자문제 등 민감 사안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인식하면서 '정경분리'를 추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남북한 관계에서의 '균형전략' 추구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경사에서 벗어나 가능한 남북한관계의 균형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
- » 시진핑은 주석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과 6회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 김정은과는 아직 1회의 정상회담도 갖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북한변화'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협력

- 시진핑 지도부는 '북핵 불용'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변화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
- »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과의 각종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조치에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3. 시진핑 지도부의 對韓 접근 의도

對중국 견제망 이완과 '이미종중(離美從中)'의 달성

-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이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에 포섭하는 이른바 '이미종중(離美從中)'을 의도
- »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의 결정적 시기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한중동맹' 수립 주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의도를 내포

'對日압박' 전략구도에 한국 동참 유도

- 시진핑 시기 중국은 아베정권에 대한 대일규탄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동참 및 협력을 유도하고자 의도
- » 중국은 중일관계를 미중관계의 '중속변수'로 인식하고, 對美관계를 통한 對日관계 관리라는 '통미봉일' 전략기조를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동참시키고자 의도

중국이 동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요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중견국'으로 인식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자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협력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

북한을 지나치게 인식하면서 '정경분리'를 추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남북한관계의 균형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한중동맹' 수립 주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의도를 내포